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2.10원 하락한 1,098.20원에 마감

21일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 분위기에 전일대비 2.10원 하락한 1,098.2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1.30원 하락한 1,099.00원에 개장했다. 개장 후 환율은 글로벌 위험선호 분위기에 하락 출발한 뒤 팽팽한 수급 속 1,090원대 후반 좁은 레인지에서 제한적인 등락을 나타냈다. 오후에는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고 장 막판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 확대에 달러 매도세가 증가하여 전일대비 2.10원 하락한 1,098.2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1,061.87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099.00	1101.20	1097.50	1098.20	1099.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060.33	1063.88	1059.02	1060.23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32.12	1336.79	1329.40	1336.35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	-0.7	-1.68	-3.18
결제환율(수입)	0.12	0.5	0.65	1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위험선호 분위기 속 위안화 강세 제한에... 1,09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098.20원) 대비 2.30원 상승한 1,100.5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위험선호 분위기가 강화되고 미국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나타내어 하락이 예상된다. 달러인덱스는 90.0선으로 하락하고 유로-달러 환율도 1.21달러대 중후반으로 상승하였다. 지난주 미국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90만 명을 기록하며 3주 만에 감소하고 시장 예상치인 92만 명을 하회하였다. 미국 나스닥과 S&P500 지수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또한, 전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세가 오늘도 이어질 경우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미국의 새 행정부 등장에도 미중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중국 위안화 강세가 제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수급상 1,100원 부근에서 네고와 결제물량이 팽팽히 대립하는 모습으로 환율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096.67 ~ 1103.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3683.1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80원 ↑
	■ 美 다우지수 : 31176.01, -12.37p(-0.04%)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76.22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4383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